

[SS054]

지속가능한 근로수명 - 직업 전환과 건강 관리

주제: 실업, 고용 불안과 건강

날짜: 6월 3일 (수)

시간: 14:15-15:45

장소: 318C

좌장: Jukka Vuori (핀란드)

책임자: Jukka Vuori (핀란드)

급속한 세계화와 기업 조직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은 직원의 유연성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또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 불안과 실직, 절망을 가져온다. 근로자들은 변화하는 일자리를 따라가고, 오랜 근무 기간 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의욕적이어야 한다. 동시에 사회의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 시스템이 충분히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상당수의 직원이 정상퇴직연령이 되기 전에 우울증, 절망, 또는 소진으로 인해 퇴직한다. 스페셜 세션에서는 생애 과정 동안 가장 중요한 경력 전환, 즉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 실직, 재고용, 그리고 퇴직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이 개인의 직장생활의 궤적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또한 이러한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업무 경력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개입의 구체적인 예를 제공한다.

세계적 관점에서 변화하는 생애 궤적, 고용 난관, 그리고 근로자의 건강

Richard Price

사회조사연구소, 미시간대학, 앤 아버, 미국

소개 및 목적

본 고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근로자들이 장년기에 난관에 직면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 수명의 맥락에서 자신의 경력을 지속하는 것과 퇴직에 관한 기준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때 제시되는 독특한 난관을 조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애 과정의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방법

고용 난관과 그것이 다음 단계에서 건강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설명된다.

- 1)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기
- 2) 장년기의 직장 생활
- 3) 퇴직 방법이 식별되고,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기반 원칙이 각 경력 단계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할 때

결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이 다음을 비롯한 연구 문헌에서 얻어진다.

- 1) 소그룹 학습 환경에서 잘 훈련된 그룹 리더의 사용
- 2)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있는 적극적인 학습 환경의 조성
- 3) 생애 단계 관련 기술에 대한 교육, 그리고 4] 좌절의 극복에 대한 훈련

결론

다음 단계는 다양한 국가적 정책 맥락에서 혁신적인 근거 기반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실업에서 고용으로 그리고 전직이나 퇴직으로의 이행 중 성공적인 전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규모의 국제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권고사항이 제공된다.

단순노동직 근로자들의 지속가능한 취직능력

Roland Blonk, Jos Sanders

행동과 사회과학, TNO, 로테르담, 네덜란드

서론:

기술 불일치를 인식하는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덜 건강하고, 업무에 덜 만족하며, 덜 생산적이고, 근로수명을 연장할 의사와 능력이 덜하다고 보고한다. 이것은 건강, 업무 무능력, 그리고 장기 실업에 관해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단순노동직 근로자들에 대해 특히 그러하다. 그들의 취약한 취직능력에도 불구하고, 단순노동직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하다. 본고는 단순노동직 근로자들과 지속가능한 취직능력에 대한 연구의 개요를 제시한다. 또한 취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 경로인 발전 경로와 이동 경로, 그리고 업무 재설계 경로가 두 연구에서 그 효과성에 대해 탐구된다.

방법:

자료는 2년 동안 추적조사와 함께 전향적 연구에서 도출되었다: 고용, 능력, 동기의 전환에 대한 연구(Study on Transition in Employment, Ability, and Motivation (STREAM)). STREAM 연구에서 45-64세의 네덜란드 국민 층화 샘플이 건강, 일자리, 성격, 근로능력, 생산성, 고용 전환에 대한 연간 온라인 설문조사에 답했다. 데이터세트는 약 6400명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연구는 STREAM 코호트 연구에서 400명 직원의 무작위 샘플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측정 2년 후인 2014년에 이 400명을 추적조사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의 특성과 현재 경제 상황이 그들이 지각하는 취업능력에 미치는 역할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결과: 양 연구 결과는 특히 발전 경로가 지속가능한 취업능력에 기여한다는 것에 집중되었다. 연구 결과는 다른 두 경로는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론: 단순노동직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사한 그룹에 속하는 이들의 지속가능한 취업능력에 도달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된다.

경력 관리 대비와 정신건강의 강화

Jukka Vuori, Salla Toppinen-Tanner

일과 조직 개발, 핀란드산업보건연구원, 헬싱키, 핀란드

소개:

경력 연장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추구는 적극적인 대처와 평생 동안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력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개념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고용 환경에 대해 대비가 되도록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대비는 자신의 경력 관리 기술에 대한 자신감, 경력 관리의 동기, 그리고 경력 관리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좌절에 대처할 수 있는 감정적 및 지식적 준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비는 오늘날의 예측할 수 없는 노동 시장에서 경력상 난관의 절망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업무 조직의 직원과 육아휴직 후 복귀한 젊은 직원의 경력 관리 대비와 정신 건강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그룹 개입의 두 사례 예를 제시한다. 첫 번째 사례에서 무작위로 할당된 현장연구(RCT)의 718명의 적격 참가자는 17개 업무 조직에서 얻어진 것이고, 그 중 대부분이 연구 기간 동안 상당한 조직 변화를 보고했다. 두 번째 사례에서 무작위 통제 현장 실험의 233명의 참가자는 육아휴직에서 직장에 복귀한 부모들이었다.

결과:

양 연구의 결과는 개입의 초기 결과로 경력 관리 대비의 상당한 개선을 보여 주었다. 장기적으로, 양 연구의 결과는 경력과 정신건강 관련 결과에 대한 유익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결론:

이 두 관련 그룹 프로그램은 함께 성공적인 경력 관리를 위한 직원의 대비와 현재 직장 생활의 도전에 대한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기반 사회심리적 개입의 힘의 예를 제공한다. 사례 연구는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생애과정 관점을 사용한 경력 관리 대비, 정신건강, 생산성에 대한 종단적 및 개입적 연구에 대해 그러하다.

Sustainable Working Lives - Managing Work Transitions and Health

Topic: Unemployment, Job Insecurity and Health Date : June 3 (Wed.)

Time : 14:15-15:45

Location : 318C

Chair : Jukka Vuori (Finland)

Responsible Person : Jukka Vuori (Finland)

Rapid globalization and constant restructuring in work organizations is producing increasing demands for flexibility of employees. This also results in job insecurity, job loss and discouragement among workers. They are expected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jobs, and remain healthy and motivated while working longer careers. At the same time, organized educational and support systems of society are not functioning efficiently enough. In many countries, a substantial proportion of employees retire due to depression, discouragement and burnout before their normal retirement age. Our special session offers descriptions of the impact of the changing labour markets on individual work life trajectories and health, focusing on the most critical career transitions during the life course: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job loss and re-employment and retirement. Presentations also offer concrete examples of interventions aimed at promoting sustainable work careers to counter the negative effects of these changes.

Changing Life Trajectories, Employment Challenges and Worker Health in Global Perspective

Richard Pric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USA

Introduction and Objectives

This paper offers a life course conceptual framework that helps illuminate the distinctive challenges presented as young people enter the workforce, as workers encounter challenges in adulthood and finally as they consider sustaining their careers in the context of longer life spans and changing norms concerning retirement.

Methods

Employment challenges and their impact on health and well-being during 1]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2] in adult working life and 3] as retirement approaches are identified and evidence-based principles for developing preventive programs support successful transitions at each career stage are described.

Results

Several underlying principles for program development emerge from the research literature including: 1] the use of well trained group leaders in small group learning settings, 2] creating an active learning environment with social support for participants, 3] teaching life stage relevant skills, and 4] training for inoculation against setbacks.

Conclusion

The next set of challenges is to implement innovative evidence-based programs in a variety of national policy contexts. Recommendations are offered based on large-scale international implementation projects to help workers make successful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from unemployment to employment and during the transition to career change or retirement.

Sustainable employability of low skilled workers

Roland Blonk, Jos Sanders

Behavioral and Social Sciences, TNO, Rotterdam, Netherlands

Introduction

Workers who perceive skills mismatches report themselves less healthy, are less satisfied with their job, are less productive and are less willing and able to extend their working lives. This holds true in particular for low skilled workers who are more at risk concerning health, work disability and prolonged unemployment. Despite their fragile employability research focused on low skilled workers is scarce. The present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research on low skilled workers and sustainable employability. Further, three routes to increase employability, a developmental route, a mobility route and a work redesign route are explored on their effectiveness in two studies.

Methods

Data are derived from a prospective study with a two-year follow-up; Study on Transition in Employment, Ability, and Motivation (STREAM). In STREAM, a stratified sample of Dutch citizens aged 45–64 years complete annual online questionnaires on health, job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work ability, productivity, and transitions in employment. The dataset consists of approximately 6400 persons. The second study consists of a random sample of 400 employees of the STREAM cohort study. These 400 were followed up in 2014 two years after the last measurement. The aim of this study was in particular to investigate the rol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on their perceived employability.

Results

Results of both studies converge that especially the developmental route contributes to sustainable employability. Results indicate no significant contribution of the other two routes.

Conclusion

It is emphasized that providing training opportuniti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low skilled workers is of high importance to arrive at sustainable employability of this under researched group.

Enhancing Career Management Preparedness and Mental Health

Jukka Vuori, Salla Toppinen-Tanner

Development of Work and Organizations, Finnish Institute of Occupational Health, Helsinki,
Finland

Introduction:

The search for feasible solutions for longer careers and their sustainability underline the need for new conceptual frameworks for managing working careers which emphasize proactive coping and a life-long perspective. We will present new solutions for preparing people for today's increasingly unpredictable employment environment. Preparedness means confidence in one's own career management skills, motivation for managing one's career and both emotional and knowledge-wise readiness to deal with the setbacks that one may encounter during the career management process. This preparedness is designed to counteract the progress of discouragement in the career challenges of today's unpredictable labor markets.

Methods:

We present two case examples of group interventions aimed at enhancing the career management preparedness and mental health of employees in work organizations and of young employees returning to work after parental leave. In the first case, the 718 eligible participants of a randomly assigned field study (RCT) were from 17 work organizations, of which the majority reported significant organizational changes during the study period. In the second case, the 233 participants of the randomized controlled field experiment were parents returning from family leave back to work.

Results:

The results of both studies demonstrated significant improvements in career management preparedness as the proximal outcomes of the interventions. In the longer term, the results of both studies showed beneficial effects on career and mental health related outcomes.

Conclusions:

Together, these two related group programs provide examples of the power of research-based psychosocial interventions to enhance the preparedness of employees for successful career management and adaptation to the challenges of current work life. The case studies underline the need for more research, especially longitudinal and interventional research on career management preparedness, mental health and productivity, using a life course perspective.